

지역 소식통

김제시, 산불예방 활동 '총력'

김제시는 5월 연휴기간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진화대를 집중 배치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무단채취 및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산불방지 및 예찰활동을 위해 7개조 43명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출발하여 주·야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산불발생에 신속대응하고 있다.

또 주요 등산로와 임도주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35명을 배치해 입산객의 화기 소지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올해 봄철 김제시에서는 한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입산자의 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간오지 등에 산불감시무인카메라와 산불감시초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진화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원평초, 김제시청 견학

김제시는 8일 관내 원평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17명이 우리고장 중심지 견학을 위해 김제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평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15명은 장지영 교사의 인솔아래 시청 종합민원실과 통합관제센터, 김제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편의 시설과 대민상담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CCTV운영현황, 비상벨 작동요령, 비상상황발생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이륜차 사고예방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8일 김제소재 이륜차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배달업주 및 배달종사원을 대상으로 이륜차 사고예방 홍보를 전개하였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제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법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이륜차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이륜차 배달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호응'

김제시, 추억의 교복체험 · 보리 네일아트 · 보리비빔밥 무료시식 등 진행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봉면에서 개최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에서 "전북투어패스"와 "2017 전북방문의 해" 등을 숨겨진 보물찾기 이벤트 행사를 통해 알림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 인근 보리밭에서 진봉면경관보전추진위원회 주최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황금보리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관람객에게 지평선쌀, 황금보리, 소금

1톤 등을 제공하는 등 "추억의 교복체험", "보리 네일아트", "보리비빔밥 무료시식"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 40여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보물찾기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숨겨진 보물편지를 찾기 위해 청보리밭 사잇길 등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추첨을 통해 황금보리를 받지 못한 관광객들에게는 김제시 특산품인 보리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문화홍보축제실

(실장 양운업)직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전북투어패스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지평선쌀을 나눠주는 등 도정대 핵심과제인 '토탈관광'과 '2017 전북방문의 해'를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양운업 문화홍보실장은 "이번 축제에 성공적인 토탈관광 사업을 위해서 작은 면단위 지역축제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전북투어패스 사업과 대표관광지사업 등 관광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찾아오는 김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완주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완주군은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제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유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세무

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ATM기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정보화농업인연구회 경진대회 성료

'완주군의 자랑 · 축제' 주제로

제2회 완주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 정보화경진대회가 '완주군의 자랑 및 축제'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최근 성료됐다.

올해 대회는 블로그포스팅 및 UCC 제작 등 2개 분야와 회원농가의 농특산물 상품전시 우수작품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또한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유영석 박사로부터 '2017년 정보화경진대회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경진 결과 분야별 최우수상은 송남희(동상)씨가 완주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블로그 분야 우수상에는 임지연(비봉), 장려상에는 최정례(동상), UCC 분야 우수상에는 강병춘(경천), 장려상에는 최윤범), 상품전시분야 우수상에는 원보연(경천)씨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UCC출품작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남희(동상) '꽃보다 완정봉'의 영



상작품은 회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들을 익살스러우면서도 감동적으로 영상에 담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욱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농업정보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 6차산업화를 전자상거래와 연계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는 2011년부터 조직해 블로그,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30여명의 정보화농업인연구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진결과 출품작은 http://cafe.naver.com/wansano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12일 시상... 문화교육분야 등 6개 분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심사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완주군민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교육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교육분야 이중하씨(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를 비롯하여, 나눔봉사분야 김안무씨(완주군자원봉사센터 수지침봉사단장), 경제분야 강정래씨(푸드인완주마더쿠기 대표), 애향분야 이중준씨(완주군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효열분야 후지다미나야(소양 약안마을), 농림축수산분야 서승완씨(삼례 백두마을)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로 선정되는 7명은 오는 5월 12일 삼례 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53회 완주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민들의 축하 속에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민대상은 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완주군을 위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가장 많은 맘을 흘린 분에게 드리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올해는 무려 27명이나 후보자가 추천되어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상하고, 수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예우 방안도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범씨 키다리병 예방 종자소독 당부

완주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소금물 가리기를 통한 충실한 범씨 선별 침침과 종자로 감염되는 키다리병, 선충 예방을 위한 철저한 종자소독을 실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벼 생육기 출수 후 고온건조와 수확기 지속적 강우 등으로 인해 폭염이 발생량이 많아지고 수발아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정부 보급종 공급량이 평년대비 50% 수준 밖에 공급되지 못했다.

또한 농가에서 자가 채종한 종자는 겉표피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충실도가 떨어져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발아 후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올해는 여느 해와는 달리 반드시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해 충실한 종자를 선별한 후 소독과 침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농가에서 자가 확보한 종자의 안전한 못자리 설치를 위해서는, 메벼의 경우 범씨 10kg 기준으로 물 10l에 소금 4.24kg(할비는 소금 1.36kg)를 녹인 물에 범씨를 담갔다, 물에 뜨는 범씨는 버리고 충실한 종자만 걸러낸 뒤, 깨끗한 물로 2~3회 씻은 다

음 소독약을 희석해 30℃에서 48시간을 침침해야 한다. 그래야만 종자로 감염될 수 있는 병해를 방지되고 균일한 발아가 이뤄질 수 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농가에서 종자소독 편의를 위해 충실한 종자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범씨를 땅에 담아 종자 소독기로 소독 및 발아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럴 경우 땅이 물에 뜨는 불량 종자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불량종자에 의한 발아율 저하와 죽음이 등 에 의한 키다리병 발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자가 채종종자는 반드시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하고 종자소독과 싹틔우기, 상자 파종 후 2~3일 상자 쌓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못자리를 설치해야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완주군은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 농가에 못자리 상토 및 벼 육묘상 병해충방제 약제 공급을 완료하는 한편, 쌀 적정생산 위해 전년도 벼 재배농지 125ha에 청애묵수수, 조경수, 생강,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